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 19면에서 계속

다 놔 버리세요. 놔 버리시고 모든 망상이 드는 것도 바로 그 자기 주처에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고 놔 버리세요.

또 모든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전부 주처에서 들이고 내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처를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붙이고 꼭 '주인공이시여,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일임시키십시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업이 많다' 이렇게 수많은 이름으로 업이니 팔자 운명이니 이런 언어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도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모든 게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말입니다.

이 도리를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지마는 이렇게나마 여러분이 안다면 주인공에다가 놓을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공에서 나오는 일들은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하는 일이나, 안에서 생각나는 거나 바깥에서 내 몸이 움죽거리는 거나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되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것도 녹고,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 넣으면 다 녹듯이 그렇게 모든 걸 녹여 나가다 보면 홀연히 과거 자기와 현재 자기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살림살이가 다 여러분이 이날까지 해 왔지 누가 해 줬습니까. 자기가 있고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알았고, 이 세상이 있는 줄 앎으로써 생활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나쁘다 좋다를 알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알아야지요. 자기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부터 왔나?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되 '이 몸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나는 무엇인가?' 이러고 관하십시오. 바깥으로 말로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말도 없이 생각 자체에 깊숙하게, 침착하게,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깨나 자나, 변소에 가나, 나거나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죠. 이해되십니까.

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질문 우주 법계에 법망이 있어 우리 일거수일투족, 일체가 다 법망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 법망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거꾸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꾸로 붙어 돌아다니니까 보는 게 올바로 보입니까. 걷는 데도 올바로 걷게 됩니까. 듣는 것도 올바로 듣지 못합니다. 보고 듣고 다니는 것이 올바르지 못한 이상, 모든 하는 것도 올바로 못합니다. 한 발짝도 에누리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상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왜 세포가 이렇게 많지? 아하, 이게 법망이로구나. 야, 내가 한생각 하는데 이 법망을 통해서 온통 내 몸뚱이 구석구석 아니 닿는 데가 없이 통신이 되는구나.'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으로부터 지금 나가는, 돌고 도는, 내가 아는 것을 모든 생명들이 다 알고 있구나.' 또 이 지구 자체도 전부 법망에 있거든요. 허공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물질이 법망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한생각을 하고 한 번 긋고 이러는 대로 그 내 법망을 통해서 전부 나가는 거예요. 발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이 '야, 저 사람은 아예 모르고 나만 아는 거니까.' 하시지만 벌써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법망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로 잘못됐다고 앨 쓰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로. 내 마음 하나 가지고서 안으로 굴려서 활용을 한다면 모두가, 전체가 알고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통신이 되는데 어째서 말로 그렇게 해 가지곤 불(佛)을 이루겠느냐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내 몸의 법망도 있거니와 지구나 또는 이 허공이나 어디에고 법망이 다 있음으로써 어느 물질이고 다 법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 산도 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고 물맥이 있고. 사람들도 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의 모든 힘줄들이 어떡해서 생긴 겁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한생각에 모두가 대뇌로 해서 전부 통신이 됨으로써, 내가 통신이 됨으로써 딴 데도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생각 한생각이 전부 우주 법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찌 인공위성으로서의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그게 첨단이냐 이겁니다.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한생각을 한다면 벌써 우주 전체의 삼천대천세계의 세 바퀴 반을 돌아요, 찰나에. 그런데 지금 인공위성을 띄운다고 하더라도 아니, 수 달이 걸리고 이러는데도 그 바로 찍어오는 거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얼마큼 차이가 있겠습니까. 빛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빠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법이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법이 다 주어져 있고 무한의 그 진리가 한 사람의 한 마음의 한 점에 있는데, 정말이지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하나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모든 자기 중생들이 지금 몇억 마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 중생이 몇억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 자체도 그렇습니다. 지구 안에 우리가 이 망사를 씌워 놓고선 그 안에서 기르는 폭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망사 속에서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는 인간들이기에 중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법망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법망에 걸리고 인과에 걸리고 윤회에 걸리느냐 말입니다. 안 걸린다 해도 아니 되지만, 그것은 자유스럽기 때문에 안 걸린다 걸린다도 없어요. 두 가지 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거는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놓을 수가 없기는, 놓고 가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곤 싸 버리고, 하곤 없어지고 이러는 거를 항상 하면서도 그것을 놓을 수가 없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생각으로 자기가 업을 지어 놓고 담을 싸 놓고 만날 걸리고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자기 생각이 좀 더 공했다는 이치를 알아서 지혜를 넓힌다면 그 모든 걸 여여하게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천장은 발이 닿고 머리는 땅 밑으로 대어 있으니 어떻게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있겠느냐.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라." 이러는 겁니다.

앞에 닥치는 일 주저하지 않게…

질문 요즘 직장인들은 힘든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불자로서 수처작주의 마음으로 하려고 다짐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앞에 닥치는 일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마음으로 생각지 않고 개선할 줄 모른다면 마음의 계발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광력이라는 빛이 바로 발현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어떻게 창조를 일으키며 노력과 생각 없이 어떻게 계발을 해서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처음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나중에 내디딘 발자국이나 항시 똑같았습니다. 잘 배우고 잘못 배우고 이걸 떠나서 진실한 내 마음이 지혜롭게 포용력 있게 팔을 벌리고 다 집어먹어야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 집어먹어 보지 않는다면 다 집어먹을 게 없다는 걸 몰라요. 또 다 버려보지 못한다면 다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버려서 얻는다고 한다면 바로 다 삼키고 다 토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사찰에서도 질서를 제대로 완화시키지 못하고 또 화목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해서 집어삼키고 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뚱이의 집은 못생겼든 잘생겼든 커다랗든 좁쌀알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집어넣어도 좁쌀알이 작지 않으니까. 못나고 잘난 모습을 보거나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왜냐. 집이 작든 크든 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헤아릴 수 없이 나가서 활약을 하는데, 다 응해 달라는 대로 모습을 화해서 나투는데 그 활약하는 모습이, 그 나툼이 전부 다르니 어떤 거를 꽉 집어서 '이거는 나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함이 여여해서 어떠한 모습을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한 개체의 집이다 이겁니다. 이 집은 일체제불의 마음이 들락날락해도 손색이 없는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들랑거려도 손색이 없는 법이요, 다 둘이 아니게 들랑거려도, 하나로 몽땅 다 들어온다 해도 작지 않은 그릇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고개가 숙여지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야 됩니다. 이거는 글렀으니깐 안 하고 이건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거는 미우니까 미워하고 이건 고우니깐 당기고, 이렇게 해서는 다 삼킬 수가 없어요. 부처님까지도 삼켜야 하는데 그렇게 허방지방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사 와도 모든 스님네들이 다 나가서 울력으로써 해 들이고 모든 걸 같이 합니다. 누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위에서는 '아휴, 저 사제들이 애를 쓰는데 나도….' 또 아우들은 '아휴, 저 사형들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나도….' 이렇게 울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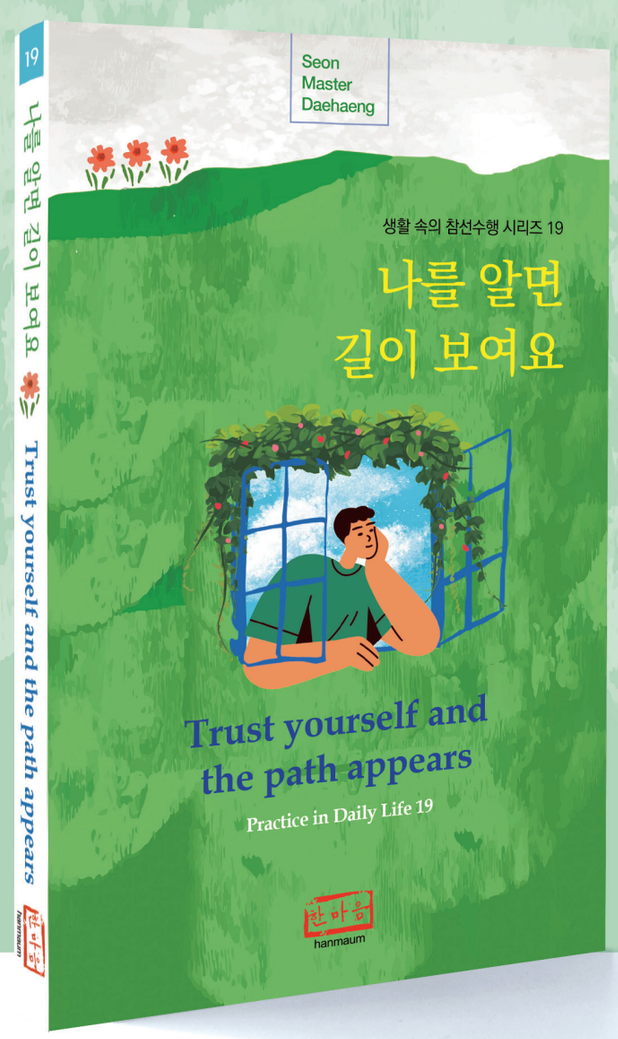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몸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 없이, 발전 없이 그 창조력을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을 켜고 앞장설 수가 없거니와 그건 목석과 같은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좀 쾌활하게, 발전 있게 그냥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시는 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무조건 자기 주처를 믿으셔야 됩니다.**
> **자기 주인공을 모르든 알든 이유를 불문에 부치고 자기 주인공을 믿으셔야 합니다.**
> **그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요.**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